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광곤도라 사전 예약제 시행

주말·공휴일에 10월~2월말까지 1인 5매까지 가능

관광곤도라를 타고 해발 1천5백20m 설천봉에 오르면 덕유산 정상 함적봉을 20분만에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년내내 관광객 및 산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매년 가을 단풍철과 겨울 주말이면 관광곤도라를 이용해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눈꽃 산행지로 손꼽히는 덕유산 함적봉에 오르기 위한 인파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 주말이면 두세시간을 기다려야만 탑승이 가능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는 오색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10월부터 눈꽃이 예쁜 이듬해 2월말까지 주말·공휴일에 한하여 인터넷 예약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예약은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서 탑승일 기준 14일 전부터 1인 5매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탑승일자과 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면, 예약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예약확정 문자가 발송된다. 당일 탑승시간 30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예약 문자를 제시 후 결제한 뒤 티켓을 발권받아 탑승하면 된다.

강풍이나 낙뢰 등의 기상상황에 의해 당일 운행이 불가한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난 겨울 처음 도입했던 관광곤도라 주말, 공휴일 사전 예약제는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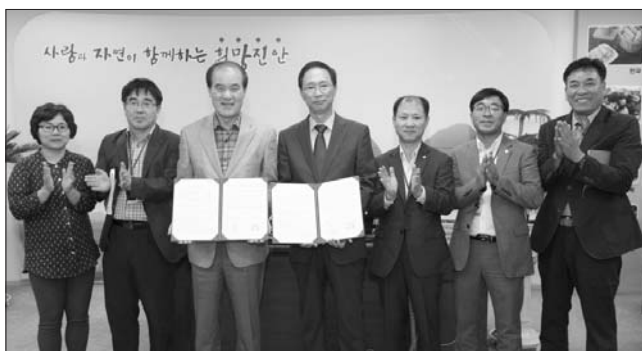
진안군, 난치성 환경성질환 관리 기대

진안의료원,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전문 위탁기관으로 선정

진안군이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민간위탁기관으로 진안군의료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의 이번 민간위탁 결정은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진안고원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함이다.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은 "앞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환경성질환 교육, 체험, 예방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치유센터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환경교육관과, 친환경 주거체험동, 자연식당, 숲속 체험장 등의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아토피 등 난치성



환경성질환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며, "진안군의료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치유센터의 일상 생활관리가 연계된 진안고원만이 갖는 통합적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이번 진안군의료원의 위탁 운영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의료서비스와 라이프스타일이 연계되는 진안고원의 치유순으로 성장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취업박람회 내일 열린다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190여 명 현장면접채용

완주군 청년들의 일자리 종합정보제공의 장인 '2016 완주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는 29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주)다산기공, (주)대우글로벌빌딩주 지점, 대주코스(주), (주)솔라파크코리아 등 도내 주요기업 및 강소기업 30개 업체가 참여해 현장면접채용, 구직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190여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주)전북은행과 NH농협전북지역본부 등에서는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 입장에서 인사담당자를 대면을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참여기업을 확인한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



해 희망기업의 면접을 응시할 수 있으며, 이력서 작성 등 맞춤형 취업컨설팅과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2016년 지역희망박람회' 일정에 맞춰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며, 완주군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공공비축미 매입

완주군이 201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했다.

지난 27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 지역 내 3개 RPC에서 산물벼 18,252포대, 건조벼는 각읍·면에서 70,066포대 등 총 88,318포대(40kg들이)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산물벼 매입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건조벼(포대, 톤백)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읍·면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불금 지원대상 면적(60%), 전년도 매입실적(40%), 전년대비 증가량 100% 이내에서 배정물량을 결정하였으며, 산물벼는 전년도 매입실적(80%), 전년도 배정량(20%), 건조벼 증감량을 감안하여 배정물량을 결정했으며 올해 매입 곡종은 신종진, 새누리 2종이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벼 출하농가에 매입 현장에서 우선 지급된 후 매입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나머지 차액이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김중욱 소장은 "건조 벼는 농산물 검사기준의 벼 검사규격을 적용하여 벼 건조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하며, 수분이 13.0% 미만일 경우는 한 등급을 낮추어 합격처리하니 농가들은 이 점을 유념해 과잉건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추경예산안 등 심의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사진)은 28일에서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3일간의 걸쳐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원(3.3%)이 증액된 3245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첫날인 2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은 상



임 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유승열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와 준비를 통한 심도있는 안건심사로 참례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로그

장수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의장 유기홍)는 26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열고 2016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행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6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행조사 계획서 승인 등을 의결했다.

장수군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행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개선·시정 및 대안 제시 등 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규태)를 구성하였으며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장수군내 33개소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통한 조사 활동을 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청탁금지법' 교육

무주군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27일 무주를 예체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법사태를 예방하고 청렴하며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군 공무원 400여 명은 한아름불를 사무소 박형운 변호사(무주읍 담당 마을번호사)로부터 청탁금지법·시정령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탁금지법 한 눈에 알아보기" 교육을 들었다.

공무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오늘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새기게 됐다"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무주군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겠다"고 전했다.

무주군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알선하지 않을 것,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절제된 생활로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이 될 것, △청렴문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며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세외수입 역량강화교육

장수군은 27일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업무 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단의 전문 강사로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정확한 활용방법 숙지와 세외수입 부과, 체납처분, 과태료 관리의 전산운영 방법 등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개별법령에 따른 담당자들의 정확한 징수결정, 체납처분, 결산 등 업무관련 교육과 전산을 이용한 실습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이 자치수입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외수입담당자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회의

진안군이 27일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3차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에 따른 사례 발굴 추진계획을 알리고 규제제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조성 사례 등에 대한 사례 발표와 향후 해당 사례 발굴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복합적인 법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정 등 규제완화 사례를 발굴하여 좋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실무추진단원들에게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업기반 정비사업 예산 확보

밭 기반 정비·논의 발작물 재배기반 추진 사업비 23억원

무주군이 2017년도 농업기반 정비사업(밭 기반 정비, 논·논의 발작물 재배기반 지원)추진을 위한 예산 23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군은 적상면 상가지구(상가리)와 설천면 장덕(장평리), 안성면 안기(안성), 무풍면 부흥지구(덕지) 등 4개 지구 65ha에 대한 밭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무풍면 곳개들지구(현내리) 10ha에 대한 논·논의 발작물재배기반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밭 기반 정비사업은 채소와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의 주산단지나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를 개발하고 농로개설이나 구획정리 등을 통해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며, 해마다 2개 지구 씩 6억여 원을 투입해 진행해오던 것을 올해는 군비를 11억 원을 추가로 확보(6개 지구 93ha)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밭 기반 정비사업의 대상 면적은 총 99지구 1,292ha로 올해까지 38지구 741.2ha에 대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2017년에는 군비 대신 국비 19억 원 확보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논·논의 발작물 재배기반 지원은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밀과 보리, 콩, 옥수수, 과수 등의 발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해당 농가(20ha)에 관정과 저수조, 관로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주천면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

2017 임산물 가공유통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 주천면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대표 김중남)가 2017년도 임산물 가공유통(가공산업활성화 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를 통한 소비확대와 임산물 가치를 높이고, 가공산업 지원을 통하여 산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현장실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난 22일 최종심의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는 연간 40만 개의 배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규모 있는 법인으로서, 2017년 공모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가공·포장실, 원료전처리실, 위생실 등 총 면적 496㎡의 건축시설 신축과 추출농축라인, 동결건조기, 포장기 등 19종의 가공·유통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9억9,000만원이다.

김중남 대표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발 빠르게 도와주시는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하여 가공·유통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 목이버섯으로 전국 최대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생태체험 아카데미 운영

뜬봉샘 생태관광지에서

장수군은 지역주민들의 생태 마인드 함양을 위해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군은 27일 뜬봉샘 생태관광지에서 지방의제 21, 일반주민 등 30명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날 아카데미 참여자들은 생태해설사와 함께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과 생태공원을 탐방하며 생명의 소중함

과 자연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마실길 걷기 행사와 연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실길 탐방 구간내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뜬봉샘 탐방 및 생태체험, 생태관광 영리터스 선진지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관광지 거점마을인 수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성공모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